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29.(수) 16:00
(지 면) 2026. 4. 30.(목) 조간

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 고도화로 재난 현장관리 역량 강화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,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·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.

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.

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,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첫째,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자 위치 정보(GPS)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둘째,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,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셋째,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(QR코드)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하며,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한다. 아울러, 기존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(iOS)에서도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.

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이번 시스템 개편은 재난관리 업무를 사무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,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더 빠르고 빈틈없이 대응하는 재난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	책임자	과 장	신승인 (044-205-5280)
		담당자	사무관	정우희 (044-205-5289)

